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 21세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일곱 가지 방법”
Chelsea Green Publishing, 2017, 320pp, ISBN 978-1603586740

김준^{1,2,3,4,5*}

¹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미래지구 프로그램, ²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
³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⁴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⁵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1년 12월 29일 접수; 2021년 12월 30일 수정; 2021년 12월 30일 수락)

Kate Raworth, “Doughnut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Century Economist” 2017, 320pp, ISBN 978-1603586740

Joon Kim^{1,2,3,4,5*}

¹Future Earth Program,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²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gricultural & Forest Meteo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³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⁴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yeongchang Campus,
Pyeongchang, 25354, Korea
⁵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Received December 29, 2021; Revised December 30, 2021; Accepted December 30, 2021)

‘농림기상학의 재고: 대전환’ 특별호에 왜 경제학 책의 서평?이란 의문이 생길만 하다. 이번 특별호를 준비하면서,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의 서평을 쓰게 된 동기는 서울대학교 학제간 프로그램인 협동과정 농림기상학전공의 ‘생태-사회시스템의 물질·에너지·정보의 순환(Matter, Energy, and Information Cycles in Ecological-Societal Systems)’ 수업에서 이 책을 주요재로 선택하게 되면서이다. 폴 새뮤얼슨의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21세기 경제학 교과서라 불리는 이 ‘도넛 경제학’은 우리 세대가 인류의 터전인 지구에 어떤 손상을 입혔는지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이며, 아마도 이를 바꾸기 위해 뭔가 해볼 여지가 있는 마지막 세대임을 깨우쳐 준다. 경제학사의 이정표를 세우고, 깊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기본 가정들을 뒤엎는 가슴 벅찬 논쟁과 더불어, 인류 미래에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안내할 일곱 가지 원리를 제안함으로써 경제학을 평범한 일상에서 기본을 지키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 멋진 걸작품이다.

이 책은 “누가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경제학자다”라는 답으로 글을 마친다. 그 사이에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곱 가지 원리를 차례대로 명료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여는 글에서 저자는 21세기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참담한 상황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한 세기를 걸쳐 인류의 세계관과 사고 방식을 소비 위주로 바꾸어 놓은 20세기 경제학을 지



적한다. 21세기의 맥락에서, 저자는 문제투성이의 가정과 잘못된 전제, 그리고 맹점들이 드러나는 현재의 경제학을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피력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생각과 움직임이 경제학을 동경하며 경제학도가 되기를 꿈꾸었던 젊은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사고의 틀이 되어 주는 그림의 힘을 강조하며 경제학의 역사에서 상징이 되는 그림의 역할을 돌아 본다. “경제학을 재고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경제학을 찾아내는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제학을 선택 혹은 창조하는 작업이다. 우리가 어떤 맥락에 직면했는지,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인류의 맥락, 가치, 목적은 계속 진화하기에 우리가 경제의 비전을 그려내는 방식 또한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특별호를 준비하면서 기로에 선 농림기상학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1장에서 저자는 ‘GDP에서 도넛으로 목표를 바꾸라’는 첫 번째 원리를 소개하며 지구의 생태학적 상한과 사회기반의 하한 사이의 공간으로 그려 낸 ‘안전하고 정의로운 도넛 공간’의 비전을 21세기의 나침반으로 제시한다. 목표를 잃어버린 학문을 상상할 수 있을까? 저자는 목표를 잃은 경제학의 등지를 그동안 GDP 성장이라는 뼈꾸기가 몽땅 차지해 왔으나 이제는 뼈꾸기를 날려 보내고 경제학이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올 때임을 깨우쳐 준다. 인류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고간 20세기 경제학은 어쩌다 목표를 잃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그 원인의 중심에 뉴턴 과학에 대한 동경과 인기있는 과학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뉴턴 과학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농림기상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2장에서 저자는 두 번째 원리인 ‘큰 그림을 보라’며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The Tempest)’를 비유로 21세기 경제학 드라마의 막을 연다. 저자는 먼저 우리 모두를 붕괴 직전으로 내 몰은 20세기를 지배한 경제학 드라마의 배후인 극작가와 대본, 등장인물을 폭로한다. 그리고 나서 21세기의 경제 드라마의 무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지를 제안한다. 시장(Market)이 주인공이 되어 금융과 기업, 그리고 무능한 정부가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이전 드라마를 뒤로 하고, 새로운 21세기 경제 드라마에서는 이전에는 등장하지도 않았

던 가구(Household)와 공유재(Commons) 그리고 새로운 역할의 국가와 시장을 새로운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린다. 저자는 이 새 드라마 대본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묻어든 경제(The Embedded Economy)’라고 명명하는데, 농림기상학에서도 주목하고 끌어안아야 할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다.

3장은 ‘인간의 본성을 피어나게 하라’는 세 번째 원리를 피력하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화상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리는 21세기의 초상화가 장래의 우리 모습을 분명하게 결정함을 상기시켜 준다. 특히 인류가 자연이라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망(Nature's Web)의 일부이면서 그 속에 깊이 묻혀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기후는 안정되고, 담수가 풍부하고, 오존층이 두꺼워 보호막이 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났던 풍요로운 시대인 홀로세(Holocene)를 뒤로 하고, 지구를 망가뜨려 버리는 인류세(Anthropocene)로 계속 치달을 것인가? 이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중심적인 가치들을 넘어 생명 세계에 내재한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농림기상학은 바로 그 중심에 서있는 학문이다.

4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모든 것들이 경제의 동학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네 번째 원리인 ‘시스템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한다. 이러한 지혜의 근간이 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s) 사고방식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강의와 연구의 대부분이 아직도 시장 중심의 기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형의 인과관계로 경제 시스템의 본질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물리학, 생물학, 생태학, 사회학, 정치학 영역에서 인류가 부딪친 도전의 대부분이 조직화된 복잡성(Organized Complexity)의 질문임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제학자들만이 이를 따라 잡는데 뒤쳐져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애초부터 잘못 선택된 뉴턴 물리학의 메타포를 집어치우고 경제라는 것이 복잡계과학에 속하는 복잡한 시스템임을 깨닫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힌 세계에 대해 당장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농림기상학도 겸손하게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학계간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전공은 전통 농림기상학의 토대 위에 복잡계과학과 지속가능성과학의 양날을 갖춘 초학문(Transdisciplinary) 과정임을 밝혀 둔다 (<http://agfm.snu.ac.kr>).

5장과 6장은 ‘분배를 설계하라’ 그리고 ‘재생하라’는 두 원리를 각각 제시하며,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자연계의 원리들을 네트워크 사고의 관점으로 소개한다. 시스템의 에너지, 물질, 정보는 네트워크를 따라 흘러가며 시스템의 효율성(Efficiency)과 회복성(Resilience)이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며,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면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반면 회복성이 커지면 시스템 전체가 정체됨을 지적하며 ‘다양성’과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학이 법칙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설계 문제로, 인류가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의 고통을 겪는 이유로 시스템 설계가 퇴행적이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재생 설계(Regenerative Design)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그러나 재생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은 재생적으로 설계된 경제가 뒷받침할 때만 실현될 수 있기에, 현실화를 위해서는 시장, 공유재, 국가 및 가구 각각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이렇게 재생적인 경제로 설계 전환하는 과정을 계량하고 감독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피력한다. 비저니어링(Visioneering)의 거버넌스와 관리가 조화롭게 비전을 성취해 나가려면(Kim, 2021), 모니터링이라는 데이터 기반의 스토리텔링, 즉 데이터텔링(Data-telling)의 되먹임(Feedback)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7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라”는 마지막 원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의 목표가 빈곤과 생태 악화를 동시에 종식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정의로운 도넛 공간’으로 들어 가는 것이라면 이 목적에서 GDP 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20세기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사람들의 삶이 피어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성장해야만 하는 경제였고, 그런 경제를 물려받은 탓에 지금의 사회적, 생태적 재난 속에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소비 위주의 경제와 사회가 오로지 성장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든 금융, 정치, 사회에 우리가 깊이 중독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모두 뒤엎어야만 함을 피력한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경제학에서는 이미 혁명이 시작되었다. 어떤 전공

이든 대학생들은 그 학문을 공부하는 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몇 년을 바치기로 선택한 사람들인데, 이런 이들을 혁명으로 몰고 간 예가 어디 있던가? 혁명은 현실과 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바꾸고 싶다면 우리를 위기로 밀어 넣은 잘못된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낡은 것으로 만들 새로운 영감을 줄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그 모습을 그려보라. 우리는 언어와 그림이 결합된 프레임워크의 힘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두 힘을 잘 결합시킨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릴 기회가 많아 질 것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21세기를 만드는 데 너무나 간절한 경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자. 시작은 어렵지 않다. 연필을 들어라. 그리고 그려라!*”

이번 특별호의 주제인 ‘농림기상학의 재고: 대전환’을 준비하는 기로에서, 이제 우리도 연필을 들고 새로운 농림기상학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한다.

감사의 글

도넛 경제학의 원리를 농림기상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미래지구 프로그램과 2021년도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Kim, J., 2021: Visioneering: an essential but neglected framework for the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23**(4), 185-189.
- Raworth, K., 2017: *Doughnut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Century Economist*. Chelsea Green Publishing.